하루를 시작하며

김 연
시인

조금, 쓸쓸한 기록

제주살이 13년 만에 드디어 엄마가 곁으로 와 터를 잡았다. 엄마의 이삿짐을 정리하러 공항으로 향하던 날, 수많은 기억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멀리 혼자 있는 엄마가 가슴 한켠 내내 시큰했는데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엄마가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부재와 엄마의 나이 듦이 아프게 실감되기도 했다. 엄마의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랜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의 나와 젊고 아름다웠던 엄마, 그리고 지금은 없는 아버지가 있었다. 사진첩과 함께 엄마의 모든 짐을 제주도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매일 바라보았을 창밖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20세기의 사랑받은 비평가로 손꼽히는 롤랑 바르트는 그의 마지막 저서, '사진에 관한 노트'라는 부제의 '밝은 방(1980)'에서 사진의 본질은 '그것이-존재-했음'이라고 했다. 사진은 찍히는 순간 과거가 되기에 '있음'이 아니라 '있었음'의 증명인 것이다. 바르트는 그 책에서 사진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며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기했다. 스투디움이 문화, 사회, 교육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보편적이고 길들여진 감정이라면 푼크툼은 개인의 경험과 교차하며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강렬한 인상과 자극을 의미한다. 책에서 바르트는 푼크툼을 "찔린 자국이고, 작은 구멍이고, 조그만 얼룩이고, 작게 베인 상처"라 했다. 말하자면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치는 사진이 나에게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마치 "화살처럼" 아프게 심장을 뚫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푼크툼인 것이다. 그렇다고 푼크툼이 꼭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매일 걷는 길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들꽃, 유독 예쁘게 하늘을 물들인 저녁노을, 낯선 여행지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그리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한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습관처럼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과거의 오늘을 소환해서 보여주는 SNS의 기능은 때때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마술적인 순간을 선사하기도 한다. 어쩌면 사진은 곧 사라질 시간,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조금 쓸쓸한 기록이자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정한 약속일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갑 한켠에 아버지의 사진을 넣었다. 그것은 지금의 부재보다 함께 했었음을 매일 확인하고픈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쑥스럽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지 않음이 내내 쓰라렸다. 엄마와도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살아온 탓에 사진이 많이 쌓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제 지척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함께 있는 순간을 담을 기회가 많아졌다. 그렇게 쌓인 사진은 나만 발견할 수 있는 푼크툼의 순간을 안길 테지만 또한 깊이 사랑했던 우리의 시간을 증명할 것이다.

사설

광어 사료서 항생제 검출… 수사 철저해야

제주의 대표 수출품이자 국민활어인 제주광어 양식장에 공급되는 사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내 모 수협을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는 사료에서 사용 금지약물인 항생제 성분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성분은 항생제여서 단 1㎎이라도 검출되면 유통할 수 없다. 경찰은 모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모 수협은 도내 양식장으로부터 폐사한 광어를 공급받아 어분사료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다. 또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단미사료에 영양소를 더한 배합사료를 가공해 도내 양식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료를 전부 회수해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전량 유통돼 회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 수협은 사료원료 등을 납품받아 가공과정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광어 양식산업은 국내 광어 양식산업의 51.3%, 도내 양식산업의 88.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미국을 비롯해 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만약 검역과정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져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배합사료를 먹은 광어가 유통과정에서 항생제 성분이 발견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경찰은 금지약물의 성분과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해 제주광어의 안전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열린마당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김 성 은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소방력에는 인력·장비·소방용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화재를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소방력에서 인력은 소방관을 떠올리고, 장비는 소방차를 떠올리겠지만 소방용수는 머릿속에 무언가를 떠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소방용수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저장 또는 확보하고 있는 일정량의 물로 소화전이 바로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소화전은 소방차에 한정된 물의 저장능력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도 화재 현장까지 효율적으로 물을 보급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가 소화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곧 화재진화를 방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항상 화재 예방과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애향운동장 가건물 철거 늦춰질 듯

폐쇄 통보에 제주시장 면담

○…제주시가 이달 10일 오전 11시로 폐쇄 일시를 통보했던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서측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 철거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

9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가건물을 쉼터로 이용 중인 노인들이 제주시의 철거 통보에 반발해 이날 오전 제주시청을 찾아 제주시장과 면담하면서 철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주시 측은 "마냥 철거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쉼터 이용자 측에 변경된 날짜를 알릴 계획"이라고 언급.

한편 제주시는 최근 인터넷 신문고에 해당 노인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단속 또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자 이날 "향후 철거 예정"이라는 답변을 게시. 진선희기자

황금향 바이러스 예방 강좌

○…서귀포시가 최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산업대학 연계 황금향 바이러스 예방 강좌' 개설 의견을 수렴, 오는 11일부터 7월까지 산업대학 9곳에서 해당 강좌를 개설·운영할 방침.

시는 황금향 바이러스 종류와 대책, 무병묘 생산기술, 재배기술 등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 및 관련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좌를 전개할 예정.

시 관계자는 "감귤 바이러스 감염 시 생산량과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황금향 바이러스 예방 강좌를 개설했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급식노동자 근무환경 하루빨리 개선하라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8일부터 이색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흔히 번듯한 장소에서 갖는 전시회와는 사뭇 다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급식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며 마련한 전시회여서 그렇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어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사진전 개막일에 맞춰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압축 노동, 초강도 노동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학교급식실 노동강도의 근본 원인인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낮춰 급식실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는 급식실 산재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과도한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6명이다. 반면 2018년 국회 정책자료에 나온 공공기관 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66명)보다 무려 갑절 이상 많다. 노동강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급식노동자들이 각종 산재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 건강한 밥을 먹이는 동안 급식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군위오씨 도춘 (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5월 10일

남 편 고계정
아 들 고기철 며느리 김미경
정기 김윤희
딸 고옥열
희열 사 위 문택순
경숙
경자 유재운
경재 강기범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시정소식

□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안내**

○ 일 시: 2023. 5. 16.(화) 14:00 ~ 14:20
○ 지 역: 전국일원
○ 내 용: 적 공습 상황에 대한 주민대피 훈련 및 차량 통제 훈련
○ 경보발령시 주민행동 요령
-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 라디오 청취
※ 스마트폰 앱 **'제주안심 앱'**, **'안전디딤돌'**을 이용하여 가까운 대피소 위치확인
- 차량은 차량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방송 청취
-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시 경계태세 유지하며 통행 가능
-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 일상 복귀

적극적인 참여가 당신을 지킵니다!!

○ 문 의: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78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